

천장 뚫린 환율에 '자동차·조선·친환경株' 수혜주 급부상

원·달러 환율 '1400원선' 눈앞
현대차·기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문가, 수출 비중 높은 업종 추천

지난 13일 일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다시 큰폭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 관련주와 미국 공급망 재편에 수혜가 예상되는 친환경 관련주가 고환율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달러 강세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친환경 관련주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5일 강달러 영향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에서 국내 대표 자동차주인 현대차는 약 7개월 만에 20만원을 회복했으며 4거래일 연속 20만 원대를 이어가기도 했다. 기아도 8만원대를 회복하는 등 오름세를 보였다.

달러 강세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높으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부각될 수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373.6원)보다 19.4원 오른 1393.0원에 출발한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강달러 추세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3분기에도 2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대차와 기아의 3분기 실적은 2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라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23%, 12%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

미국 공급망 재편에 수혜가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및 전기차 배터리 주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이달 들어 각각 7.78%, 2.67% 올랐으며 포스코케미칼은 10.41% 상승했다. 신재생에너지주인 대명에너지는 9.03% 상승했고 태양광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4.16% 뛰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릴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달러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역시 레벨 부담에 따른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유의미한 방향성 전환은 겨울철 유로화 약세 심화와 맞물려 연말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사의 기존 연간 상단(1380원)이

돌파된 만큼 1차 저항선은 1420원으로 판단하고 연내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달러 강세로 인해 국내 증시가 한동안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달러 수혜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또한 투자 시 고환율에도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달러를 강하게 하는 요인, 유럽 에너지 위기, 중국 제로코로나 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공급망 재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대미수출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석유 제품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고환율 효과를 누릴 업종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을 꼽았다. 노 연구원은 "이들 업종은 환율 상승이 전 화위복이 돼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간판 바꾼 한투운용 ETF 브랜드... 업계 '에이스' 노린다

'KINDEX' → 'ACE'로 전격 교체
ETF 산업 내 경쟁력 강화 나서
반도체 관련 ETF 등 라인업 추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자체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의 이름을 KINDEX에서 'ACE'로 전격 교체한다. 배재규 대표가 공언한 ETF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는 반도체 관련 ETF 출시를 진행하는 등 ETF 라인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4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ETF 브랜드 변경 계획을 공개했다. 배재규 대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최고의 자산운용사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ETF의 성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투운용 ETF의 새로운 이름은 '에이스(ACE)'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ET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F 산업 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 대표는 "한투운용 ETF를 최고의 에이스이자 최고의 고객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브랜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며 "진정으로 고객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부를 증진시

키는 것을 새로운 임무로 삼았다"고 전했다.

ACE는 '최고의 고객전문가(A Client Expert)'라는 뜻으로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새롭게 변경한 이름은 다

음달 13일부터 기존 ETF 상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ETF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기존 선두 업체와의 전면적인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ETF 산업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이 각각 42%, 38%에 달한다. 이에 후발주자인 중위권 이하의 자산운용사들에서 압도적인 상위권과의 직접적 경쟁보다는 새로운 테마형 ETF 등 출시에 나서는 등 블루선 발굴에 집중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투운용에서는 ACE ETF 라인업에 경쟁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대표지수 상품, 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 상품도 추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배 대표는 "대표지수 상품과 같이 변동성이 낮은 상품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두면 투자의 재미가 떨어진다"라며 "동시에 테마

형 ETF를 추가하는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향후 ETF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선두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찬영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불과했던 ETF 시장이 최근에는 76조원까지 성장했다"며 "5년 뒤에는 연금시장 성장세까지 고려하면 200조원까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가 만족하는 상품 이상으로 스스로가 모르는 욕구까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순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팬덤으로 이어질 수 있는 ETF 브랜드 파워를 보유해, 200조원으로 성장한 시장에서 충분히 25%에 달하는 50조원 이상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더불어 올 하반기 중으로 반도체 ETF 출시에 나선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시장이 내재가치보다 낮게 거래된다고 판단했으며, 반도체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미래에셋증권-IBK기업은행, 디지털 결제 협약

디지털 신규사업 공동 연구·발굴

미래에셋증권은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상거래 디지털화 및 고객 결제 편의성 제고, 디지털 신규사업 공동 연구·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해 양사의 협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식에서 각사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업 외에 고객들에게 새로운 금융생활을 제공하기 위

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IBK기업은행 무선결제단말시스템인박스포스(BOXPO S) 내 미래에셋PAY를 비롯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거래 디지털화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워렛 오픈 플랫폼 미니프로그램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10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아이폰 간편결제 미래에셋PAY를 출시했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왼쪽)과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이 양사 디지털 결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며, 2018년 12월 증권회사 최초로 PG업인가를 완료하고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을 체결해 워렛페이와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PAY와 워렛페이가 가맹점 증대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관희 기자

코인원, 임직원 생활 보안 점검 캠페인

보안 취약점 등 제보시 포상

가상자산거래소코인원이사내 캠페인 '크립토포디아 시즌2: 생활 보안 777'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한 크립토 문화 형성을 위해 '임직원 보안 인식 강화'를 주제로 기획한 전사적 캠페인이다.

생활 보안 777 캠페인은 '매일 오후 7시 퇴근 전, 7가지 보안 항목을 점검하고, 매일 7일 검토하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인원이 설립 이래 8년간 보안 무사사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업무 중 개개인의 보안 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또한 코인원은 7가지 보안 실천 메시지 및 보안 취약점 제보용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를 사내 곳곳에 부착했다. 소프트웨어 상시 업데이트, 업무용 계정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의심스러운 메일과 문자 링크 절대 클릭 금지 등의 메시지를 담는다. 업무 중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 등을 제보하면 보안 부서에서 해당 사안을 조치 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캠페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 업무용 PC 내 캠페인 메시지를 강조한 화면보호기를 적용하고 스티커 등 곳곳도 배포했다.

/이영석 기자